

유럽, 화학제품 생산량 감축

APPE의 최근 생산량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석유화학 산업계가 93년 상반기 Upstream의 생산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.

93년 1/4분기 및 2/4분기중 BP와 Einchem이 각각 연산 37만톤 및 36만톤의 생산시설을 증설했지만 상반기 에틸렌 생산량은 0.8% 성장한 767만4000톤, 프로필렌은 1.4% 증가한 463만7000천톤에 그쳤다.

서유럽 폴리머 생산량 및 매출(1992)				(단위 : 1000M/T, %)		
구 분	생산량	증감률	총매출	증감률	수출량	증감률
LDPE	4,726	1.7	4,701	▽1.8	513	▽6.7
LLDPE	917	63.5	818	10.2	81	107.7
PVC	4,782	2.6	4,841	4.6	359	33.0
PP	4,444	5.3	4,443	6.7	468	▽0.8
HDPE	3,121	8.8	3,102	7.1	232	16.6
PS	1,741	▽0.9	1,772	▽0.7	155	5.4

자료) APME

92년 상반기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생산량은 각각 9%, 10%의 성장세를 보였다, 92년에는 PS를 제외한 모든 폴리머 제품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매출도 LDPE 및 PS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.

한편 PP와 PVC의 매출증가율은 생산량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PP만이 서유럽의 수요증가로 인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91년 PVC의 해외매출은 33% 증가했다.

<화학저널 1993/10/4 · 11>